

한국에서도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일이 나쁘다고는 말할수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기본적인 에티켓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에티켓, 예를들면,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거나, 걸으면서 담배를 피거나 길 여기저기 버려져있는 담배꽂초등등,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뭐라고 말할수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울때, 가장 강조했으면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배려할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담배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담배는 자신뿐만아니라 상대의 건강도 해치는것이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울때 주위에 한번 마음을 쓰는 자세를 가지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담배를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것같다.

상대방을 배려할수 있는사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사람, 이렇게 되 주었으면 한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는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점점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다. 청소년때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뿐만아니라 아이에게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큼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이같은 것을 어렸을때부터 가정과 함께 학교에서 가르치지않으면 안된다. 거기에 담배를 피울때에 지켜야할 여러가지 에티켓을 수반하여 가르쳐 주면 점점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수반하여 어른이 모범을 보일것은 말할것도 없는 일일것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것이 되버린 담배! 이제 바른 사용법의 인식이 가장 필요한때라고 생각한다.